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30년전인 1978년 여름에 당시 여의도에 있던 중소기업전시관에서 KIPES(국제인쇄산업전시회)가 첫 선을 보였다. 이후로 2년에 한번씩 열려 온 KIPES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올 9월 25일 16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외 인쇄관련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는 기록할 만한 발자취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인쇄관련산업 발전에 끼친 공로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KIPES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시회로 자리를 굳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전시전문공간인 킨텍스에서 개최됨으로써 전시규모와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다.

KIPES는 오프셋인쇄기, 디지털인쇄기, 프리프레스를 비롯 제책, 자가공 및 인쇄관련기자재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2006년 전시회에는 1만4천여 평방미터 규모에 21개국에서 278개사가 출품했는데 금년 전시회에는 2만1천여 평방미터 규모에 25개국에서 350여개사가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전통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쇄관련기자재 전시회인 독일의 드루파, 영국의 아이팩스, 미국의 프린트, 일본의 아이가스에 비해 규모나 내용면에서 많이 뒤쳐진다는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늦게 시작된 인쇄기자재전에도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서운한 점은 하이텔베그, 로랜드, 고모리 등 메이저급 메이커들이 수년전부터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프레스부문의 큰 기계들이 빠지면 썰렁(?)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들 메이저 메이커들은 브랜드 때문인지 소규모 출품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올 전시회에는 유명

KIPES는 오프셋인쇄기, 디지털인쇄기, 프리프레스를 비롯 제책, 자가공 및 인쇄관련기자재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하이텔베그, 로랜드, 고모리 등 메이저급 메이커들이 수년전부터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시회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성장가도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메이저급 메이커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메이커의 이름이 전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인쇄인중에는 메이커에서 한국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도 더러있는 실정이다. 사실 해외 유명 인쇄기자재전시회에는 국내인쇄관련인들이 줄잡아 1천명이상씩 참관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국내인쇄기자재 전시회에 기대를 거는 인쇄인 또한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KIPES 하나만이라도 이제 메이저급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쇄관련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중추국에 제대로 된 인쇄전시회 하나 없다면 이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최측에서도 시대변화에 맞게 대형 프레스 선호보다는 디지털, 전자화 등 특성화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전시회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성장가도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메이저급 메이커들의 동참을 다시한번 촉구해 본다.

오세익 · 편집주간